

미국 가정학의 대학확장교육활동(Extension)의 동향*

The Extension in America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교수 김외숙**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Professor Kim, Oi-Soo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troducing the extension in American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nd making the implications from it to apply in Korea. The study was conducted using literatures, interviews with the extension relates and visiting extension offices in America. The main contents for the introduction consist of the history, organizations, funds, programs, and extension agents in American extension. The practical and cooperative characteristics, volunteerism, the attitude of agents and in-services for them are suggested for the application of American cooperative extension system to Korea.

▲ 주요어(Key Words) : 대학확장교육활동(extension), 익스텐션 에이전트(extension agent), 가정학(family and consumer sciences), 스미스-레버법(Smith-Lever Act), 국유지무상교부대학(land-grant university)

I. 머리말

오늘날 가정학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정학의 노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동안 가정학에서는 가족 및 소비자의 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공헌을 해 왔으나, 가정학 내외적으로 전공자의 사회적 공헌과 관련하여 만족스러운 평가를 받지 못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가정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직종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강하게 대두되어 왔으며, 1998년 가정학계에 의하여 개발된 가정복지사는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

하여 개발된 직종의 하나로서 최근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로의 변환과 관련하여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학의 사회적 실천 또는 가정학전공자의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미국의 대학확장교육활동(extension)을 살펴보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가정학이 이 활동의 초기부터 중요한 전문분야의 하나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고, 가정학 전공자가 가정과 교사 다음으로 이 분야에 많이 진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실천이 가족 및 소비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가정학의 목적과도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학확장교육활동은 연구에 기반한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회교육의 하나인 익스텐션((extension)의 번역어로서 대학확장활동, 대학확장교육, 보급활동, 지도사업, 교도사업 등으로도 번역되고 있다.

미국의 가정학분야 대학확장교육활동과 유사한 제도로 우리나라에는 생활개선사업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1958년 농사원 교도국에 농촌가정과가 설치되고, 각 도 및 시·군에서 가정교도원이 활동하면서 농촌생활개선지도사업이 시작된 이후 1962

* 이 연구는 1999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진흥재단의 교수 해외연수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이 연구를 위하여 1999년 8월부터 2000년 6월까지 거의 매주 2시간 이상씩 협력해준 오하이오주립대학 가정대학 소비자의류학과 Extension Specialist, Dr. Carolyn McKinney에게 특별한 감사를 전한다.

** 주저자 : 김외숙(E-mail : kimos@knou.ac.kr)

년 농촌진흥청이 발족되면서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생활개선지도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시대적 배경과 정부조직의 변화에 따라 생활개선사업도 수차 변화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는 농업인구의 감소, 지방자치제의 실시, 정부기구조정 등으로 전통적으로 농촌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온 생활개선사업이 새로운 환경에서 계속 발전하기 위한 대안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먼저 미국에서 대학확장교육활동이 시작된 역사적 배경을 검토하고, 대학확장교육활동을 위한 조직과 예산, 프로그램, 대학확장교육활동 전문가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 가정학 전공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때 미국의 대학확장교육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로 한다.

연구는 문헌 및 인터넷 자료 외에 대학확장교육활동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관련기관에 대한 견학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미국의 대학확장교육활동이 주에 따라 상당히 다른 특징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분에서는 대학확장교육활동이 활발한 대표적인 주의 하나로 꼽으면서 현장연구가 가능했던 오하이오주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II. 역사적 배경

미국은 19세기 영국으로부터 대학확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발전시킴으로써 미국대학에서의 성인교육의 역사는 대학확장교육활동의 역사라고 할만큼 이 활동은 중요한 위치에 있다. 대학확장교육활동이란 학교의 인적 자원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비정규학생들을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Merrian & Brockett, 1997).

미국의 대학확장교육활동은 공식적으로는 1914년 스미스-레버법(Smith-Lever Act)의 통과에 의하여 시작되었지만, 그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깊다. 미국의 협동적 대학확장교육활동 제도(Cooperative Extension System; CES)의 기원은 남북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862년 링컨 대통령이 서명한 모릴법(Morrill Act 또는 Land-Grant Bill)은 “산업계층에게 교양 및 실용교육을 장려”하도록 공유지를 기부하여 새로운 농과대학을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의하여 오늘날 일반적으로 주립대학으로 알려져 있는 국유지무상교부대학들(Land-Grant Universities)이 설립되었다. 그 후 1887년의 헛치법(Hatch Act)은 국유지무상교부대학의 연구소(Experiment Station)를 위하여 연방정부가 지원을 승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1890년의 모릴법 개정에 의하여 남부에서 흑인전통의 국유지무상교부대학이 설립되었다. 이들 세 법안이 노동계층 미국인 자녀들의 고등교육을 보다 가능하도록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던 1800년대에 이미 비공식적인 농업교육이 많이 행하여졌다. 다양한 농업조직들이

연구소에서의 연구결과를 일반인에게 전달하는 주된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농학 및 가정학 교사들이 이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대학확장교육활동이 증가하고 활성화되면서 더 많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요구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14년에 통과된 스미스-레버법은 대학확장교육활동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농무성과 국유지무상교부대학들 사이의 상호협력과 이 활동을 위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미국에서의 대학확장교육활동을 크게 강화시켰다.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확장제도의 목적은 농학 및 가정학 관련주제에 관한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보급하는 것이었다(Rasmussen, 1989). 이 법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협조관계가 조성되고 카운티(county)로부터도 지원을 받으면서 대학확장교육활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세계 제1차대전 기간 중 대학확장교육활동이 특별히 활발하였으며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제도가 급격하게 발달하였다. 전쟁 후에는 농업 디프레이션으로 “농업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그때 많은 대학확장교육활동 전문가들이 주로 농부와 일대일로 접하면서 효율적인 생산과 마케팅을 강조하였다. 이 시기에 대학확장교육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증가하면서 대학확장교육활동에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게 되었다. 그 후 점차 농촌인구가 도시로 집중되면서 대학확장교육활동이 개별적으로보다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미국에서 대학확장교육활동이 활발한 대학은 위스콘신(Wisconsin)대학과 미네소타주립대학(University of Minnesota), 미시간주립대학(Michigan State University) 등인데(이규환, 1993), 오하이오주립대학(The Ohio State University)도 이 분야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하나로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905년에 4-H Club의 전신인 Boy's and Girl's Club이 오하이오주에서 설립되었으며, 이 일을 담당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얻은 교사 Albert B. Graham이 미국에서 최초로 대학확장교육활동의 직책으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농업가정대학(College of Agriculture and Domestic Sciences) 직원으로 채용되었다. 오늘날에도 미국에서 두 번째로 National Leadership Assessment Center를 개설하여 이 분야의 행정 및 관리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 집중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대학확장교육활동 전문가들의 연례발표에서도 이 주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학 대학확장교육활동부의 웹사이트 “Ohioline” (<http://ohioline.ag.ohio-state.edu>)에는 한달 평균 약 2백만회의 접속(1999년 기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이 분야 웹사이트 중 미국에서 가장 많은 접속건수이다. 대학확장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인용되는 Journal of Extension에 게재되는 논문수에 있어서도 오하이오주 관계자들의 비중이 높다(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 2000).

오하이오주 최초의 가정학분야 대학확장교육활동은 1909년에

이루어졌다. 당시에는 Home Demonstration Agent로 불린 대학 확장교육활동 전문가 C. W. Foulk가 30명이 등록한 단기과정의 교육을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실시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Christian, 1959).

III. 조직 및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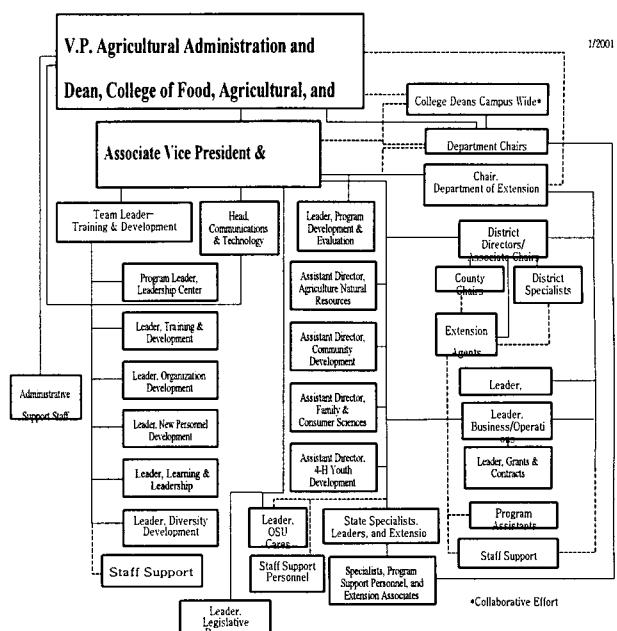
미국의 대학확장교육활동조직은 국유지무상교부대학의 대학 확장 부서와 농업연구소를 정부 조직과 연계한 독특한 삼자구 성체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조직구성은 미국에서 독특하게 개발한 제도로서, 이후 세계적으로 모방되어 오고 있다(Rasmussen, 1989).

미국의 대학확장교육활동을 위한 정부조직은 연방, 주, 카운티 정부에 걸쳐 있다. 연방 조직은 농무성(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CSREES)이다. 이 조직은 Cooperative State Research Service와 Extension Service가 통합된 기관으로서, 연방정부 수준에서 대학확장교육활동을 총괄하고 있다. 이 기관에서는 박사인 National Program Leader(NPL)가 전국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주를 지원한다.

대학확장교육활동 조직의 주 파트너는 주, 준주(Territory) 및 DC에 있는 국유지무상교부대학 등에 설치되어 있다. 주의 대학확장교육활동조직에는 고정된 형식이 없지만 모두 주요 프로그램 영역에 특정된 직원을 가지고 있다. 대학확장교육활동의 주 프로그램에 리더십을 제공하는 Extension Specialist는 대부분 전공학과의 구성원으로 대학확장교육활동 외에 대학의 연구와 (또는) 교육 책임을 갖는 경우가 많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오하이오주립대학 대학확장부(The 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가 연방정부와 이 주의 각 카운티를 연계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오하이오 농업연구개발센터(The Ohio Agricultur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OARDC)가 대학확장교육활동의 기초가 되는 연구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단과대학 중에서는 농과대학(College of Food, Agricultural, and Environmental Sciences), 생물학대학(Biological Sciences), 생활과학대학(Human Ecology), 수의과대학(Veterinary Medicine)이 전통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으며, 최근에는 경영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의 참여도 확대되고 있다. 4개 주요대학의 학과에는 Extension Specialist라고 불리는 교수들이 소속되어 대학확장교육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카운티 전문가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 교육을 위하여 Extension Associate들의 도움을 받는다. 농과대학에 대학확장학과(department of extension)가 별도로 있으며, 주 또는 카운티의 일부 전문가들은 이 과에 소속되어 있다.

직접 주민을 상대로 대학확장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조직이

카운티에 있는 대학확장사무소(Extension Office)이다.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최소한 한 명의 Extension Agent가 미국의 3,150여개 카운티에서 일한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Agent의 수가 카운티에 따라 3-40명으로 차이가 크다. 이는 카운티의 인구수 뿐만 아니라 기금에 따라 담당자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카운티의 경우 전문직이 사무실 피고용자의 2/3를 차지한다.



<그림 1> 오하이오주립대학 대학확장교육활동부 조직도

대학확장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제도를 Cooperative Extension System이라고 할 때 협동(cooperative)의 의미는 대학확장교육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연방, 주, 카운티가 분담한다는 의미가 크다. 미국 전체를 볼 때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자금이 약 30%를 차지하고, 주와 지방 자금이 70%를 차지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주정부가 주요 자금원이 되어 왔다(Rasmussen, 1989). 비영리기관 및 사설기관, 그리고 정부의 다른 부처의 기금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공공자금은 이를 기금을 취득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주에 따라 예산의 출처나 지출의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1999년 지출액은 \$57,885,032이었다. 그 수입출처를 보면 41%는 주예산이고, 연방예산은 단지 20%밖에 되지 않는다. 카운티 예산이 계속 증가해 오고 있는데, 1999년의 경우 약 30%에 달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기부금도 계속 증가해 오고 있으며, 기금마련을 위한 노력이 상당히 많이 기울어지고 있다. 지출내역을 보면 예산의 80%가 대학 및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1,500여명의 인건비이고, 나머지 20%는 운영비로 사용되었다(The Ohio State Extension, 2000).

대학확장조직의 인적 구성은 교육적 강점을 상징하고 있다. 연방수준의 구성비율은 1%밖에 되지 않으며, 국유지무상교부대

학 교직원이 약 1/3을 차지하고, 나머지 2/3는 미국내 3,150개의 카운티에 배치되어 있다(Rasmussen, 1989).

IV. 프로그램

1. 프로그램의 종류

전국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는데, 연방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기본 프로그램(Base Program)은 다음과 같은 7개 영역이다(www.reeusda.gov/1700/programs/baseprog.html).

- ① 4-H 및 청소년 개발
- ② 농업
- ③ 지역사회 자원 및 경제 개발
- ④ 가족발달 및 자원관리
- ⑤ 지도력 및 자원봉사 개발
- ⑥ 자연자원 및 환경 관리
- ⑦ 영양, 다이어트, 건강

각 주에서는 주의 설정에 따라 프로그램 영역을 조정한다. 오하이오주의 경우 전통적으로 가정학, 농업 및 자연자원, 지역개발, 4-H 청소년개발의 네 영역을 다루어왔고(The Ohio State Extension, 2000), 2000년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커뮤니케이션 및 기술영역을 추가하여 다섯 영역으로 나누고 있다(<http://www.ag.ohio-state.edu>).

이 중 가정학 영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은 주제영역으로 세분할 수 있다.

- ① 부모교육을 통한 강한 가족의 육성
- ② 영양, 생활양식, 식품안전의 향상
- ③ 시간, 화폐, 기타 자원의 관리
- ④ 건강과 환경에 대한 관심의 고양
- ⑤ 일과 가족 사이의 다중역할 관리

구체적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우선 강한 가족의 육성을 위해서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 기술, 훈육 기법, 인간발달 등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투옥중인 아버지를 위한 '아버지 역할 10주 프로그램',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법원의 명령으로 참여해야 하는 '자녀가 부모의 이혼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 중년이나 노인, 어린이집 운영자 등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가족영양 프로그램(Family Nutrition Program: FNP)은 가정학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정부의 식품보조를 받는 가족을 주대상으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가족 이외의 일반 가족을 대상으로 '식품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NEOL(Nutrition Education OnLine)은 임신 중이거나 부모가 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웹을 이용하여 상호작용을 쉽게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자원관리와 관련해서는 화폐관리, 여성의 재무정보, 의류관리, 가계부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데 많은 참여자들이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수표사용과 가계부기록' 프로그램은 소비자파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법원이 명령해서 듣게 하는 프로그램의 예이다.

건강 및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도 중요하다. 헛빛에 타는 것을 별로 개의치 않는 미국인 농부들에게 피부암의 위험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보존을 위한 가정내 쓰레기 관리 교육 등이 이러한 영역에 포함될 수 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확대되고 사회의 변화가 극심해지면서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영역 중 하나가 다중역할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취업준비를 위한 내용을 주로 다루는 프로그램, 취업 중 가정관리를 잘 함으로써 일과 가족 사이에 조화를 유지하도록 돋는 프로그램 등이 있다.

2. 프로그램 예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앞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가정학 영역 중 특정분야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어 있다. 그러나 일부 프로그램은 대상의 특성에 맞추어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 중년 역시 그 나름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의 하나로서 Navigating Midlife가 있는데, 이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성이 돋보이는 예가 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표 1>과 같이 다양한 세부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간발달, 가족관계, 재무관리 등 가정관리학 분야뿐만 아니라 영양학, 의류학 등 가정학 전반에 걸친 주제를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 Navigating Midlife

프로그램 명칭	주제
The Magic & Miseries of Menopause	폐경
Laughter Is Ageless	유머
Weathering Change	변화
When Your Chest Falls into Your Drawers	의복
I'm Not Aging, I'm Marinating	영양과 건강
Nurturing Your Marriage at Midlife: Making Love Last a Lifetime	관계
Making Cents Out of Non-cents	재무
Midlife Crisis or Male Menopause?	중년남성

한편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인터넷은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의 전달방법 역시 변화시키고 있다. 인터넷 사용의 증가에 따라 가족 및 소비자가 스스로 진도를 조절하면서 자학자습하고 교육자와 상호작용도 가능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

구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 Virginia Polytechnic Institute and State University에서 각각 인간발달, 균접환경, 영양식품운동 분야를 담당하는 Extension Specialist들이 공동으로 개발한 공공 인터넷 사이트가 Family Check-Up (http://doriantext.vt.edu/cf/family_checkup)이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생활, 재무, 영양 및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가족의 건전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들 영역에 대하여 스스로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제공하고, 평가한 결과를 이전 평가자들의 평균과 비교해 주며, 나아가 교육자료 및 대학 확장 전문가와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세부분-가족생활, 재무관리, 영양과 식품 안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족생활부분은 하위범주를 편부모 가족생활만족도, 양부모 가족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부모역할 만족도로 나누어 각 영역에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재무관리부분은 가족구성원들이 다양한 분야에서의 재무관리 실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영양과 식품안전 부분에서는 다양한 식품섭취, 만성질환 위험요인의 감소 및 식이성 질환예방과 관련된 습관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각 평가도구에는 주제관련 문항과 함께 인구학적 배경에 관한 문항이 별도로 포함되어 있고, 이들 문항에 모두 응답할 때 접수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있다.

<표 2> Family Check-up

프로그램 명칭	주 제	문항 구성
Family Life	편부모 가족생활 만족도	만족도 3/ 배경 5
	양부모 가족생활 만족도	만족도 4/ "
	결혼 만족도	만족도 3/ "
	부모역할 만족도	만족도 3/ "
Personal Finance	재무관리 습관	습관 12/ 배경 8
Nutrition & Food Safety	식습관	습관 12/ 배경 12

이 사이트의 운영을 통하여 가정학 전공자들은 참여자의 욕구를 분석할 수 있고, 참여자들이 인터넷에 제공된 교육자료에 접근하게 할 수 있으며, 가정학 분야간의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제작에 이용할 수 있으며, 이 프로그램을 가정학 전공자들의 마케팅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Peterson et al., 1999).

V. 익스텐션 에이전트(Extension Agent)의 활동

1. 자격

Extension Agent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학사학위가 요구되며, 보통 석사학위가 필요하다. 오하이오주의 경우에도

최근 학사학위소지자로서 Extension Agent가 될 수 있도록 자격이 완화되었는데, 석사학위가 없을 경우 근무하면서 학위를 취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보조원과 자원봉사자들로부터 보조를 받는다.

Quigley(1974)는 가정학분야의 Extension Agent에게 요구되는 자질로 타인과 함께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과 인간 및 인간문제에 대한 이해를 들고 있다. 2년 이상 경력의 Extension Agent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성공적인 Agent에게 요구되는 자질로서 성격특성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공정성, 솔직성,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었다(Cooper et al., 2001).

2. 활동

Extension Agent로서 가장 중요한 일은 프로그램의 선택과 운영이다. 프로그램 개발은 농림부 CSREES의 Program Leader나 대학의 Extension Specialist가 주로 맡고 있으며, Extension Agent도 개발에 참여할 수는 있다.

각 카운티에서는 카운티의 특수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취사선택해서 시행하고 있다. 다른 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도 차용해서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카운티에서 근무하는 Extension Agent의 몫이다. 예를 들면 오하이오주에서는 말(馬)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말관리와 관련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이 없는데, 어떤 카운티에서 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면 말이 많은 캔터키주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은 다양하다. 초기에는 Home Demonstration Agent로 불리는 전문가들이 주민의 집을 개별 방문하거나 소규모 집단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지만, 오늘날에는 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집단적으로 지도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교수방법은 전통적인 면대면 교육이 될 수도 있고, 대중매체, 인터넷, 비디오나 오디오 테이프, 컴퓨터 디스크이나 CD, 출판물 등을 이용할 수도 있으며 위성강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팜플렛, 책, 전본 등 여러 가지의 지도자료가 동시에 제공되기도 하며, 실습을 하거나 토론을 하기도 한다. 대학 확장 교육 활동이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생활의 질 향상을 그 임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수차례 걸친 계획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교육장소는 다양하다. 카운티 사무소에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주로 사용하지만, 피교육자의 편의에 따라 학교, 지역도서관, 기업체 등에서도 많이 이루어진다. Knox 카운티의 경우 위성강의를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교육매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식사나 다과를 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책걸상을 쉽게 이동하여 소집단 활동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교육공간이 있다. 교육용 공간의 규모나 시설설비의 수준은 사무소 자체와 마찬가지로 카운티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tension Agent는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라디오 및 텔레비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직접 출연하기도 하며 신문에 투고하는 등 매스컴을 통한 지역사회교육에도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의무적이지는 않고, 개인별로 차이를 보이지만, 대부분 매스컴을 중요한 교육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Extension Agent의 중요한 활동으로 자신이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는 편지나 전화, 이메일에 대한 응답은 물론이고, 생활 일반에 관련된 다양한 문의에 대한 정보제공도 빼놓을 수 없다. 주민에 따라서는 Extension Agent를 지역사회의 정보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Extension Agent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면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을 조직하고 훈련하는 것도 Extension Agent에게는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으며, 가족 또는 소비자와 관련있는 다른 조직과 협동하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3. 직업으로서의 장단점

경험에 따라 발전가능성이 높고 창의성을 발휘할 기회가 많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 수 있다. 다른 내용이 생활과 직결되기 때문에 생활인으로서 유익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넓은 지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여행을 즐긴다면 그것도 장점이 될 수 있다. 임금도 평균적으로 교사와 비슷한 수준이므로 다른 가정학 전공자에 뒤지지 않는 것으로 평가된다. 계속 훈련을 받기 때문에 시대에 뒤지지 않는 장점도 있다.

저녁시간이나 주말에도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시간이 불규칙하고, 노동시간이 긴 점이 대표적인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Quigley, 1974). 오하이오주 Knox 카운티의 경우 주말에도 거의 2/3의 Agent가 근무하며, 야간근무도 자주 있다고 한다. 대신 평일의 주간 근무시간 중에도 담당하는 일이 없을 경우 개인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장시간 근무나 불규칙적인 근무의 단점이 보완된다. 이러한 근무여건은 이들이 지역주민에 대한 사회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4. 재교육 및 전문가조직

Extension Agent는 이들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연수 과정을 통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개발해 나간다. 특히 프로그램별 연수회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뿐 아니라 프로그램의 운영방법에 대해서도 교육한다. 이들에 대한 재교육에서도 다양한 교육방법이 사용되는데,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훈련이 상당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uske et al., 2001).

중년대상의 Navigating Midlife 프로그램을 예로서 프로그램

운영자를 위한 교육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연수회는 1999년 11월 17, 18일 양일간 콜럼버스 시내의 공공도서관에서 시행되었다. 연수대상은 카운티의 Extension Agent 및 지역 Extension Specialist들이고, 오하이오 주립대학 가정대학 대학학장부가 주최하였다. 이 연수회에서는 중년기 자체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한 강의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참여자를 교육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예를 들면 중년기의 경우 골다공증이 나타나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식물성 단백질 식품인 콩의 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과 함께 콩을 다양 섭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리법(두부를 이용한 음료수 만들기)까지 실습하는 식이었다. 교육프로그램에 유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연수회 진행 중에도 중년을 묘사한 익살스러운 만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기도 하였다.

연수회에서는 발표초록은 물론이고 중년과 관련하여 다른 주제에 개발된 자료나 발표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발행된 자료, 여성건강을 특집으로 다룬 뉴스워크지 등 다양한 자료가 제공되었다. 한편 대학학장교육활동 전문가들은 전문영역별로 전국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 가정학분야의 조직은 National Extensio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NEAFCS)로서, 이를 통하여 Extension Agent는 이 분야의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적 자질을 개발하며,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가정학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Extension Service 전문가를 위한 인터넷 잡지 Journal of Extension(JOE. <http://www.joe.org>), 인공위성으로 방영되기도 하는 비디오 잡지 Partners on the Web도 발행되어 이들의 상호교류를 촉진하고 있다.

미국가정학회(America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AAFCS)의 6개 직종별 구분 중 하나인 대학학장부도 Extension Agent의 전문조직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VI. 한국에서의 적용을 위한 시사점

미국의 경우 대학학장교육활동의 역사가 장구할 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가 간단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학장교육활동은 특히 제1차세계대전, 경제대공황, 제2차세계대전이라는 세가지 위기상황에서 국가유지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asmussen, 1989). 그러나 클린턴 행정부의 National Performance Review(NPR)에 따른 정부의 구조조정 이후 농림부의 대학학장교육활동 담당부서가 연구 담당부서와 통합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날에는 예산 및 전문가 부족이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사회의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할지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Schuchardt & Dinkins, 1995).

초창기와 비교할 때 오늘날에는 많은 전문분야가 대학 확장 교육 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분야별로 그 효과도 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가정학 분야의 경우 농촌에서 시작된 대학 확장 교육 활동이 농촌인구 비율이 극히 미미한 미국에서 오늘날에도 이혼, 약물중독, 폭력, 미혼모 증가 등 많은 가족문제를 안고 있는 미국인의 생활의 질 향상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양한 수준의 정부조직과 대학이 협동하여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천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미국의 대학 확장 교육 활동을 통하여, 우리들이 오늘 이 시점의 한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할 때 몇 가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프로그램 운영자에 대한 계속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과 그 활용, 지역성에 기반을 둔 실천적 프로그램, 창의력과 봉사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직업자세 등은 사회적 배경의 차이를 감안하고서도 가정학 전공자로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때 특히 배우고 싶은 점이라고 본다.

몇 가지 점으로 나누어 간단히 검토하기로 한다.

1. 실천성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되는 사태가 발생한 3일 후 미국 가정학회에서는 이메일을 통하여 회원들에게 사태 대응 방안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뿐만 아니라 뉴욕주의 국유지 무상교부대학인 코넬대학의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CCE)을 위시한 많은 대학의 대학 확장 교육 활동부에서도 재난극복을 위한 교육자료를 인터넷에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재난을 당한 가족이나 친척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자녀들에게 재난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재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등에 대한 교육자료들이다. 이러한 예에서 미국 가정학의 실천적 측면과 함께 특히 대학 확장 교육 활동의 시의적절성과 주민의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반응을 알 수 있다.

이 예는 실용성과 관련하여 시의적절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선택한 것이다. 가정학이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필요한 과제에 즉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적 정보를 제공하는 일이 중요하고, 이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이 가장 기본이 됨을 알 수 있다.

2.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의 협동

미국의 대학 확장 제도는 정부 기관과 대학이 협동하여 과학적인 정보를 지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가정학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농촌 진흥청의 생활지도사업이 미국의 대학 확장 교육 활동과 유사한 기

능을 수행해 왔고, 농촌 생활 연구소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가 정학과가 생활 개선 사업의 중요한 축을 구성해 왔다.

그런데 농촌지도사업이 도입된 1950년대와 달리 오늘날 농촌인구가 감소하면서 다양한 생활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생활 개선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미국의 경우 카운티라는 행정 조직이 도농을 모두 포함하는 구성을 갖기 때문에 인구 비율의 변화나 사회 문제의 경향에 따라 도시 문제를 포괄하는 방향전환이 보다 용이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정부 조직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따라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행정 조직을 달리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가정학 전공자가 지역민의 생활의 질 향상에 공헌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할 뿐 아니라 이들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행정 조직을 확장하고 필요하다면 신설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전문 영역별 협동과 통합성

미국의 대학 확장 교육 활동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전문성을 비교해 보면 대학의 학과에 소속되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무가들을 교육하는 Extension Specialist는 전문 영역이 세분화되어 있으나 카운티에서 주민과 접촉하고 있는 Extension Agent의 경우 가정학 관련 프로그램을 모두 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학 확장 교육 활동에서 가정학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실생활에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경우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청소년 문제라 하더라도 청소년의 인간 발달적 측면뿐만 아니라 가족 관계, 소비 행동, 시간 사용과 여가 생활, 나아가 의식 주 생활, 사회와의 관계까지 이해할 때 그 해결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중년, 노인, 저소득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 편부모 가족, 각종 환자나 수험생 가족 등 특정 상황에 있는 많은 개인 및 가족의 문제에서 찾을 수 있다.

다음으로 실천의 장에서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도 통합성은 절실하게 요구된다.

미국의 경우 영양 프로그램은 기금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전문 Agent를 두는 카운티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한 사람의 Agent가 가정학 분야의 모든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나아가 청소년, 지역 사회 개발 분야까지 겸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전문 영역의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Agent가 Extension Office의 책임을 동시에 맡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모두 경제적 효율성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민 자치 센터가 부각되면서 가정학 전공자의 진출을 위한 노력이 기울여지고 있다. 이 센터의 운영에 가정학 전공자가 진출하고자 할 때 만약 가정학 내 세부 영역별로 전공자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효율적인 것인가?

가정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부전공분야별로 전문화된 진로 개발이나 지역사회봉사활동을 준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함과 동시에 가정학 전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직종을 개발하는 일도 중요하다. 가족 및 가정 생활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이 필요한 대상에 맞추어 가정학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협력하여 실천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운영자 또는 강사에 대한 연수를 통하여 개발된 프로그램을 확산시킴으로써 학문의 정체성과 함께 실천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과거의 30년은 가정학이 전문화를 지향하였다 면 앞으로의 방향은 전문화 위에서의 통합이 필요한 시기라는 견해(유영주·강완숙, 1996; 박명희, 2000)를 지지하며, 특히 대학학장교육활동을 위해서는 가정학의 통합성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4. 전문가 교육 및 재교육

대학교육은 사회적 수요를 반영해야 하고, 실무가로서 직업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지식을 준비시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요구이다. 그러나 만약 가정학졸업생이 현장에서 가족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 때 대학에서의 교육에만 기반을 두고 스스로 능력개발을 책임져야 한다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실천적인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요구에 부응 해야 하는 실무자의 경우 체계적인 재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프로그램의 개발 뿐 아니라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무가에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재교육이 프로그램 개발 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본다.

5. 자원봉사자 활용

미국의 대학학장교육활동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담당하는 기능은 다양하다.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하고, Agent의 운영을 보조하기도 한다. 다양한 자율조직을 구성하여 대학학장교육 활동기구와 연계하며 지역민을 위한 봉사활동을 수행하기도 한다. Extension Agent의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이러한 자원봉사자를 훈련하고 이들과 협동하며 활동하는 것이다.

만약 유급의 공무원만이 대학학장교육활동을 전담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상당한 재정부담을 감수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에서의 자원봉사자 활용은 시사하는 점이 크다.

이상의 시사점을 기초로 우리 사회의 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모색을 추후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

의 생활개선지도사업, 학교에서의 가정과교육과 사회교육에서의 가정학, 가정복지사의 역할과 사회적 수요, 농림부·보건복지부·여성부·행정자치부 등 행정조직과의 연계, 대한가정학회와 한국농촌생활과학회 등 학회들과 한국가정생활개선진흥회,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등 가정학 실천조직들 사이의 네트워크, 전국에 걸쳐있는 가정학 관련 대학 및 학과와 독자적인 텔레비전 방송국과 전국적인 원격영상강의시설 및 13개 지역대학 등을 갖추고 있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기능과 역할분담 등에 관한 다각적인 검토와 실천을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접수일 : 2002년 1월 15일
□ 심사완료일 : 2002년 4월 4일

【참 고 문 헌】

- 김외숙(1993). 생활개선활동과 가정학의 과제. *The Proceeding of the 6th Korea-Japan Home Economics Symposium*.
- 박명희(2000). 가정 관리분야 연구의 사회적 기여: 실천 학문적 특성평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85-202.
- 유영주·강완숙(1996). 가정학의 반성적 고찰;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시론. *대한가정학회지* 34(3), 1-8.
- 이규환(1993). 영국과 미국 대학의 성인 계속교육적 기능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한국문화 연구*.
- 이연숙(2000). 지역사회 주민을 위한 가족자원관리교육 프로그램.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 제 4차 총회 및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1-16.
- 정영금(1995). 사회 교육에서의 가족자원관리교육의 전개방향. *대한가정학회지* 33(5), 269-277.
- 최정숙(2000). 미국과 영국의 대학계속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방송대학교 논문집*(30), 339-355.
- 홍형옥·최재순(1998). 미국 대학의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가 제공하는 Internet상의 주생활정보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69-82.
- Babbitt, E., Desmarais, J., Koehler, C., Lacy, B., and Merchant, M.M.(1988). Overcoming "Techno-Fear". *Journal of Extension* 26(4).
- Betts, S.C., Frith, A.M., Watters, S., and Shepherd, S.(1996). Working across program areas: Children-, youth-, and families-at-risk. *Journal of Extension* 34(2).
- Boyle, P.G. & Mulcahy, S.H.(1993). Public policy education: A path to political support. *Journal of Extension* 31(4).
- Brubaker, L. & Etling, A.(1990). The cooperative extension game. *Journal of Extension* 28(1).
- Bunnell, J.B. & Beutler, I.F.(1999). The domestic labor puzzle: Meaning and emotion. *Journal of Extension* 37(5).
- Calvert, P., Konan, M.A., and Bowers, J.A.(1990). How newspapers reported extension's 75'th anniversary. *Journal of Extension* 28(4).

- Carpenter, Z.L.(1993). Expanding the extension horizon. *Journal of Extension 31(4)*.
- Chen, N.(1997). Building bridges - An intergenerational program. *Journal of Extension 35(5)*.
- Christian, C. F.(1959). *History of cooperative extension work in agriculture and home economics in Ohio*. The Ohio State University.
- Crave, M. T. & Janke, B. B.(1988). Enhancing our image. *Journal of Extension 26(3)*.
- Crooks, M. & Steiner, P.(1987). Families... take time. *Journal of Extension 25(4)*.
- Dailey, A.M.(1991). Building international bridges. *Journal of Extension 29(2)*.
- Deshler, J.D.(1990). Community risks : Extension's future role. *Journal of Extension 28(2)*.
- Fehlis, C.P.(1992). Urban extension programs. *Journal of Extension 30(2)*.
- Fetsch, R. J. & Kennington, M. S.(1997). Balancing work and family in cooperative extension: History, effective programs, and future directions. *Journal of Extension 35(1)*.
- Fetsch, R.J. & Gebeke, D.(1994). A family life program accountability tool. *Journal of Extension 32(1)*.
- Grogan, S., Brink, M.S., & Yerka B.L.(2000). Integrating nutrition and parenting practices for young families: A report of two statewide projects.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rom Research to Practice 92(5)*, 64-67.
- Hammer, M. S.(1990). Waste management: New directions for home economics. *Journal of Extension 28(4)*.
- Haynes, B. R.(2000). Management skills of county extension administrators: Are they sufficient to do the job?. *Journal of Extension 38(2)*.
- Hinton, K.(1994). Extension's role in developing community volunteers. *Journal of Extension 32(2)*.
- Kohler, C. E. & Scholl, J.(1997). Book review: Two new extension publications. *Journal of Extension 35(4)*.
- Kraft, G.(1999). Education reform as public policy: A role for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37(3)*.
- Leholm, A., Hamm, L., Suvedi, M., Gray, I., and Poston, F.(1999). Area of expertise teams: The Michigan approach to applied research and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37(3)*.
- Livingston, P. & Holt, B.A.(1987). Reaching out to third world women. *Journal of Extension 25(3)*.
- Maricle, G.L.(1991). Understanding cooperatives. *Journal of Extension 29(1)*.
- Merriam, S.B. & Brockett, R.G.(1997). *The profession and practice of adult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 McKenna, P.G. & Barber, Jr. W.G.(1987). Extension goes to high school. *Jurnal of Extension 25(4)*.
- Montgomery, B. & Rider, M.E.(2001). Health care and family consumer sciences education: An integrative approach. *Journal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From Research to Practice 93(1)*, 42-45.
- Mueller, M.R.(1988). Planning policy for the future. *Journal of Extension 26(4)*.
- Murphy, A., Coleman, G., Hammerschmidt, P., Majewski, K., and Slonim, A.(1999). Taking the time to ask: An assessment of home economics agents' resource and training needs. *Journal of Extension 37(6)*.
- Nelson, D.E.(1991). Is extension changing too rapidly?. *Journal of Extension 29(3)*.
- Newman, D.(1999). Land Grant University information delivery through automated telephone message service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Extension 37(5)*.
- O'Neill, B.(1999). Teaching consumers to use the internet to make consumer decisions. *Journal of Extension 37(3)*.
- 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2000). *1999 Annual report*.
- Patton, M.Q.(1984). Extension - A citizen of the world. *Journal of Extension 22(5)*.
- Peterson, R., Kratzer, C., Leech, I., Stadler, K., Roberts, T., & Sumner, M.(1999). A family check-up: A web-based, self-assesment program in family life, financial management, nutrition, and food safety. *Journal of Extension 37(6)*.
- Portman, D.N.(1978). *The university and the public*. Chicago: Nelson Hall.
- Prawl, W., Medlin, R., and Gross, J.(1984).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through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 Columbia: University Printing Services.(contents)
- Quigley, Eileen Elliott(1974). *Introduction to home economics*. Macmillan Publishing Co., Inc.
- Rasmussen, W. D.(1989). *Taking the university to the people - Seventy-five years of cooperative extension*. Ames: Iowa State University Press.
- Ratchford, C. B.(1984). Extension: Unchanging, but changing. *Journal of Extension 22(5)*.
- Riggs, K. & Beus, K.M.(1993). Job satisfaction in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31(2)*.
- Rivera, W.M.(1990). Future of extension worldwide. *Journal of Extension 28(3)*.
- Rowland, V.(1990). Volunteer time. *Journal of Extension 28(3)*.
- Russell, M.M.(1991). Cooperative extension and the Land-Grant University: A futures history. *Journal of Extension 29(2)*.
- Safrit, R.D.(1998). Volunteerism in Ohio central cities and surrounding communities: Frequency, potential, and demographics. *Journal of Extension 36(1)*.
- Sanders, H. C.(1972). *Instruction in the cooperative extension services*. Louisiana State University and Agricultural and Mechanical College.
- Schaefer, J.M., Huegel, C.N., and Mazzotti, F.J.(1992). Expanding into the urban arena. *Journal of Extension*

- 30(2).
- Schuchardt, J. & Dinkins, M.(1995).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in a reorganized USDA. *Family Economics and Resource Management Biennial 1*, 73-76.
- Simpson, G.(1998). Extension is not just service, but service learning is important to extension. *Journal of Extension 36(5)*.
- Small, S., Day, P.M., Fitzsimmons, E., and Young, R.(1988). Family times. *Journal of Extension 26(2)*.
- Sutphin, C.M. & Hillison, J.(1999). History of extension work in Virginia prior to Smith-Lever. *Journal of Extension 37(6)*.
- Thomson, J.S., Kiernan, N., Pierre, T.L., and Lewis, R.B.(1987). Between the world of work and home. *Journal of Extension 25(3)*.
- Warner, M.E., Hinrichs, C., Schneyer, J., and Joyce, L.(1998). From knowledge extended to knowledge created: Challinges for a new extension paradigm. *Journal of Extension 36(4)*.
- Warner, Paul D. and Christenson, J. A.(1984). *The cooperative extention service - A national assessment*. Boulder: Westview.
- Webb, B.K.(1989). Beyond tradition. *Journal of Extension 27(2)*.
- Cooperative S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tension Service. www.reeusda.gov.
- Cornell Cooperative Extension. www.cce.cornell.edu/issues/cceresponds/.
- Extension Association of Family and Consumer Sciences. www.neafcs.org.
- Family Check-Up. doriant.ext.vt.edu/cf/family_checkup.
- Journal of Extension. www.joe.org.
- Navigating Midlife. ag.ohio-state.edu/~midlife.
- OhioLine. ohioline.ag.ohio-state.edu.
- Partners on the Web. www.reeusda.gov/partners.
- The Ohio State University Extension. www.ag.ohio-state.edu.